

철새업체 난립에 지역 몫 반토막

전기공사 입찰에 외지기업 난립
원주~강릉 鐵 물량 2백억 잠식
전입 180일 미만 입찰 제한 촉구

철새업체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도내 건설사의 몫을 외지업체에 빼앗기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최근 8건의 원주~강릉 북선전철 전기공사를 총 934억4,343만6,654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30% 이상 지역의무공통도급이 적용되며 표면상으로는 도내 업체가 전체의 38.2%인 357억118만4,917원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중 3건은 지난 4월 도로 전임한 철새업체가 지역 건설사로 참여, 이들의 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도내 업체 수주금액은 157억3,292만6,697억으로 크게 줄어든다. 그동안 한국전기공사협회 도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본사가 도내에 전입한 지 180

계약명	계약금액	지역건설사	지역건설사 지분율(금액)
둔내~진부 간 전차선로 신설공사	162억8,564만	승아전기 (춘천-4월 전입)	54% (87억9,425만)
둔내~대관령 간 전철전원설비 신설공사	162억1,441만	정화통신(강릉)	30% (48억6,432만)
진부~강릉 간 전력설비 신설공사	152억3,883만	효성(영월)	30% (45억7,165만)
진부~강릉 간 전차선로 신설공사	140억8,700만	일석 (춘천-4월 전입)	41.6% (58억6,019만)
서원주~둔내 간 전력설비 신설 기타공사	106억2,764만	우민전기 (춘천-4월 전입)	50% (53억1,382만)
둔내~진부 간 전력설비 신설공사	93억8,549만	현대아산(고성)	30% (28억1,565만)
대관령~강릉 간 전철전원설비 신설공사	80억6,608만	백두(강릉)	30% (24억1,980만)
지장신호설비 이설 기타공사	35억3,836만	조은전기(춘천)	30% (10억6,151만)

(자료 : 한국철도시설공단 전자조달)

일이 넘지 않는 업체에 감점제를 적용 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도내 전기공사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이 대부분 3~4등급에 그치는데 이번 공사 물량의 경우 1~2등급 업체에만 만점을 주면서 지역 중소건설사의 참

여가 적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차부한 전기공사협회 도회장은 “올해 1,000억대 공사가 추가 발주될 예정으로 철새업체 전입 방지 및 신용등급 평가 완화 등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허위윤기자

입찰 한달여 앞두고 도내 이전 '철새업체' 공사 수주 논란 확산

속보= 원주~강릉 북선전철 전기공사를 외지업체들이 대거 수주(본지 7월2일자 1면)한 가운데 도내 상업용 오피스텔로 본사를 이전한 외지 업체가 170억원 규모의 공사를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나 '철새업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인 원주~강릉 간 북선전철의 전기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1183억원 규모의 8개 공사에 대한 입찰을 실시, 8개 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8개 업체 가운데 5개 업체는 서울,

춘천 사무실 5명만 근무
4명은 서울서 출퇴근
'무늬만 지역업체' 지적

충남, 경기 등 외지 업체였으며 나머지 3개 업체는 강원도 업체다.

하지만 이들 3개 업체 모두 입찰을 한달여 앞두고 지난 4월 서울에서 춘천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170억원 규모의 공사를 낙찰받은 A업체의 경우 춘천으로 주소지를 이전, 등기부등본상 춘천이 본사지만 일반 사

무실이 아닌 주거 겸용 상업용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오픈, '무늬만 지역업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더구나 이 업체는 서울에 있을 당시 직원이 20여명에 달했지만 본사인 춘천 오피스텔에는 5명만 근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1명은 오피스텔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도내 업체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130억원 규모의 공사를 낙찰받은 B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서울에서 1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던 이 업체는 지난 4월 춘천으로 본사를 이전했지만 춘천에 근무하는 인원

은 5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강원도 업체로 분류되면서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결국 서울, 경기 업체와 공동도급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강원도 업체들이 본 공사는 물론 공동도급에서도 제외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와의 경쟁에서 밀려 어쩔 수 없이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도내 업체들은 "주소지를 옮길 경우 지역 업체로 등록돼 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을 맺을 필요가 없고 서울에 있는 자회사 등을 끌어들이며 마진을 전액 챙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도내 전기공사업계 한 관계자는 "이들 철새 업체는 공사완료 후 다시 서울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즉각적인 보수가 이뤄지지 힘들고 부실시공의 위험도 크다"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기업체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kwwin@kado.net

동서고속화철도 '운명의 8월'

〈춘천~속초〉

道 "통일 대비 핵심 철도망"... 예비타당성 결과 주목 3번째 도전하는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도 다음달 결론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이 본계도에 오름에 따라 강원도 3대 현안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및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의 사업추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와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 사업 승인 여부도 다음달 결정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함께 최문순 도정이 추진하는 도 3대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맞물려 도의 미래 발전 지도를 그리는 핵심 인프라이기도 하다.

3대 현안 중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EFEZ)만 2013년 2월 지정받았을 뿐 나머지 사업은 최문순 2기 도정에 들어서도 풀리지 않고 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남북통일시대와 북극항로 개설 등 북방경제시대를 선도할 핵심 철도망이라고 도는 강조하고 있다. 지난 3차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낮게 나왔다. 그러나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의 '대안노선 및 활성화 방안 용역' 결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당초 지난달 말 최종

설악 오색로프웨이 개념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8월로 연기됐다.

총사업비 3조379억원이 투입되는 동서고속화철도는 춘천~양구~인제~속초를 연결하는 91.8km 구간으로 인천국제공항철도(74.4km), 경춘복선전철(81.4km)과 연결된다. 지난달 18일 속초시·화천군·양구군·인제군 등 4개 시·군은 민간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조기 건설 추진을 건의하기도 했다.

3번째 도전하는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 사업추진 여부 역시 8월 초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판가름난다. 도는 설악권 관광 활성화와 산양 서식지 등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달 중순 열리는 국민공청회에서 환경보전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는 사업비 450억원을 들여 오색에서 끝청까지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2차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지만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 추진을 강조하면서 어느 때보다 사업추진에 대한 기대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강원지역 발전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경원선 복원이 통일 논의의 급물살을 타고 이달 말 착공해 본계도에 오른 것처럼 나머지 2개 숙원사업도 평창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은 지난달 말 백마고지역~군사분계선 총 11.7km의 철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이 중 북측구합의가 필요없는 1단계 사업(백마고지역~월정리역 9.3km)을 2017년 준공 예정으로 우선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1단계 사업비 1508억원은 전액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된다. 정희훈기자 hoony@

삼척 신규 원전 '초미의 관심'

주민 반대 속 정부 강행의지... 2018년이나 결론 날 듯

신규 원전 예정부지로 지정된 삼척시가 원전 유치 반대의사를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건설 강행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사업의 추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과 관련 국회보고회에서 "원전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 투표 대상이 아니고, 주민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규 원전 예정부지로 지정·고시된 만큼 지역주민들의 설득과 이해를 구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달 초 공개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는 제6차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신고리 7·8호기를 제외하는 대신 신규 원전 2기를 포함해 총 4기의 원전을 신규 원전 예정부지로 지정·고시된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에 각각 2기씩 건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최대한 협의를 하되, 신규 원전 건설부지는 2018년 발전사업자 허가 단계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삼척시의 원전 유치 반대가 확고하다는 점이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민선 제6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진행된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부지에 삼척시의 성장 동력산업과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다양한 산업을 유치할 구상을 하고 있으나 정부가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지난해 10월 원전수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투표자의 85%가 반대의사를 나타내자 정부에 신규 원전부지 지정·고시 해제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한화큐셀코리아와 100MW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 시장은 "일단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전력수급정책에 기여하고 원전에정구역 고시 해제 등 백지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희훈기자

첫삼 뜬 '레고랜드 코리아'... 잠음 여전

사업자 간 법적 공방에 감사원 감사까지 악재 산적 최악의 경우 '좌초' 될수도

콘텐츠 중심의 관광도시 춘천을 이끌 테마파크 레고랜드 코리아가 진입교량 기공식으로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간 가운데 사업자 간의 내홍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아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은 레고랜드 사업의 최초 사업자이자 LL개발의 주주인 LTP코리아 측이 레고랜드 코리아 사업의 시행사인 LL개발의 한 임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LTP코리아 측은 “회사가 양수도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 중 약 10억원이 LTP코리아의 전직 임원이자 현 LL개발의 임원에게 갔는데, 이 중 6억여원을 개인 빚 등을 갚는 데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LTP코리아의 임원으로 있던 시절) 사업 초기 회사가 어려워 개인의 부동산 담보 등으로 대출을 알선했고, 이밖에 이를 변제한 것”이라며 “유용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LL개발은 반대로 LTP코리아의 전직 임원이 같은 임원이었던 동생에게 임금 등을 부풀려 지급했다며 서울북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여기에 역사단체들이 사업을 승인해 준 문화재청을 상대로 청구한 국민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이 같은 우려를 감지하고 있다. 최 지사는 지난 1일 열린 레고랜드 코리아 진입교량 기공식에서

“전체 일정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으며 사업의 가속도를 내기 위해 곧 2기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해 새 출범하겠다”면서도 최근 레고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와 사업자 간의 내홍 등 의혹에 대해선 “매끄럽지 못해 부서 간 잡음이 발생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감사원 감사는 결과가 나오면 처분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의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감사원 결과에 따라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레고랜드 코리아는 국가적 테마파크로 조성되는 만큼 대응적 차원에서 수사와 감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레고랜드 코리아는 춘천시 중도동 하중도 일대 1291㎡(약 390만평) 부지에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호텔, 워터파크 등이 들어서는 종합관광시설 조성사업이다.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투자금 10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5011억원을 투자해 201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대림산업이 시공을 맡은 진입교량은 총연장 1058.5m, 폭 25m 규모로 건설되며, 2017년 8월 완공 예정이다. 정희훈기자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송도국제도시 RM2 블록) 입주자모집공고 정정공고

2015년 7월 2일 건설경제에 게재된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송도국제도시 RM2 블록)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 공급대상

구분	주택관리 번호	주세입 (주거전용 면적) (㎡)	세대별 계약면적(㎡)			기타비용 (㎡)	입주 예정 시기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단행 주택	201500796-01	59.9700A	59.9700	24.8000	84.7700	31.5225	2016년 9월
	201500796-02	59.9900B	59.9900	25.3865	85.3765	31.5330	
	201500796-03	72.9900	72.9900	29.6171	102.6071	38.3683	
	201500796-04	84.9700	84.9700	33.4266	118.3966	44.6636	
	201500796-05	101.9900	101.9900	40.5923	142.5823	53.610	
	201500796-06	171.2800	171.2800	69.5782	240.8582	90.0315	
	201500796-07	172.1500	172.1500	70.5007	242.6507	90.4889	